지상강의 지난 2일 성결대 영암신학사상연구소(소장 박정수 교수)에서 진행된 학술세미나의 주요강의 내용을 지면에 옮긴다. '초기 한국성결교회와 김응조 목사의 성서해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초기 한국성결교회와 김응조 목사의 성서해석'

1부 영해(靈解), 알레고리인가? '기독 모형론' 인가?

박정수(Dr. theol. 성결대학교 교수)

초기 한국성결교회 지도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된 메시지, 즉 인간과 세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중심으로 성서를 해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영해(靈解)'라는 주해방법이었다. 대표적으로 이명직, 이건, 김응조 목사 등은 구약의 내용을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하여 해석했다. 이명직·이건 목사의 대표작 『성서영해전집』(I/II권)은 성서를 모형론적으로 이해했는데, 특히 이명직은 테이트 박사의 『창세기 강해』에서 깊은 영향을 받아 구약의 모형론적 해석을 '영해'라고 규정하며 초기 한국성결교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나갔다.

이들은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되,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알레고리와는 달리, 성서 본문에 근거한 모형론을 추구했다. '영해'는 김응조 목사의 다양한 설교집과 특별히 『성서대강해』 전체를 구성한 해석의 관점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신앙을 성결 교리와 연관시키는 '기독 모형론(Christcentric typology)' 경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헹스텐베르크(E. W. Henstenberg)나 페어베른(P. Fairbairn)과 같은 19세기 서구정통주의 성서학의 모형론과 잘 어울린다. 더 나아가 20세기 구원사 신학의 흐름에서 폰 라트(G. von Rad)와 고펠트(L. Goppelt)의 '구원사 모형론'은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제도에서 모형(type)을 찾되,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구원사 원형(antitype)으로 발전하는 계시의 점진적 성격을 핵심에 두고 있다.

김응조의 『성서대강해-출애굽기』에서 특히 성막과 제사, 제사직에 관한 설명을 신약 히브리서의 구원신앙 및 대제사장 기독론과 결부시키는 측면은 구원사 모형론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 성결교회의 성서신학은 '기독 모형론'을 정당하게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첫째, '영해'가 '기독론적 환원주의'에 함몰되면 과도한 '영해'와 알레고리로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구원사에서 계시의 상승적 구조와 그리스도 사건을 종말론적 정점으로 보는 구원사 모형론의 본질적 요소는 간과하고, 단지 모형과 원형의 대립 구조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영해'는 정통주의 모형론보다는 구원사 모형론에 더 친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일어나는 곳 어디서나 매우 자유롭고 적극적인 모형론적인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리라. 이것은 성결교회가 본질상 체험적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 아닐까? 또 성서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전통에는 한편으로는 성서해석에 대해 자유로움과 대담성, 성서적 규범성 내에 머무르려는 특성이 서로 조화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셋째, '기독 모형론'이었던 '영해'는 단지 성서주해라기보다는, 신구약을 통일적으로 읽는 '하나의' 성서신학이었고, 게다가 초기 성결교회에만 독특하게 사용된 것만도 아니었다. 이것은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계몽주의 성서학과는 다른 입장에서 '교회를 위한 신학'과 '성서적 선포의 중심'을 추구하였던 19세기 경건주의 전통으로서 오늘날 복음주의 전통은 바로 이 흐름에 속한다.

성결교회의 선구자들이 꿈꾸었던 성서신학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성서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기초한 책이며,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종말을 앞당겨 세상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던 구원사 모형론으로 읽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성결교회의 성서학 기초는 나름 탄탄하게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2부 신앙을 위한 미드라쉬적 상상력과 성경 해석

권성식(Th.M. 비산동교회 목사)

성경 해석학은 시대와 신앙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그중에서도 유대교의 미드라쉬(Midrash)는 단순한 랍비 문헌을 넘어, 성경의 심층적 의미를 탐구하고 신앙적 교훈과 실천적 지침을 도출하는 독특한 해석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미드라쉬는 본문의 신학적·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적 요청과 신앙적 필요에 따라 본문에 내재된 의미를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동체의 삶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드라쉬는 히브리어 '다라쉬(찾다, 묻다, 탐구하다)'에서 유래한 말로, 본문을 깊이 파고들어 그 이면에 숨겨진 신비와 교훈을 끊임없이 캐내는 유대인의 해석학적 태도를 상징한다. 그 핵심은 성경 본문을 시대와 공동체의 현실에 맞게 '현재화'하는 데 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미드라쉬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잠재적 의미를 시대적·신앙적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미드라쉬는 자의적 상상이나 무분별한 상징 해석(알레고리)과는 구별된다. 알레고리가 본래 의미와 무관하게 상징을 자유롭게 활용한다면, 미드라쉬는 텍스트의 신학적·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며, 본문에 내재한 의미를 공동체의 현실과 신앙적 질문에 맞춰 능동적으로 해석한다.

미드라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본문을 구절이나 단어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해 신학적·윤리적 의미를 도출하는 '해석 미드라쉬'(할라카와 학가다)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적 해석으로 본문을 공동체의 삶에 직접 적용하는 '강론 미드라쉬'다. 해석 미드라쉬는 율법의 세부 규정과 실천 지침을, 학가다는 비유·상징·설화를 통해 신앙적 메시지를 확장한다. 강론 미드라쉬는 회당에서의 설교나 교육, 신앙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미드라쉬적 해석은 구약성경 자체의 다양한 본문 변이와 해석의 자유로움, 히브리어 맛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칠십인역(Septuagint) 본문의 차이, 그리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 해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대 예언자들은 과거의 신앙 전승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은유와 상징을 통해 당대 현실에 맞는 새로운 메시지로 전환했다. 신약의 저자들 역시 구약 본문을 자신들의 신학적 이해와 공동체의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는 미드라쉬의 '현실화된 해석'이라는 핵심 기능을 잘 보여준다. 미드라쉬의 진정한 힘은 본문을 단순히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각 시대와 공동체의 구체적 삶 속에서 새롭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

영암 김응조 목사의 『성서대강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 전통의 미드라쉬와 깊은 대화를 나눈다. 김응조의 주석 방법론은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분해'에서 시작해,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을 조망하는 '종합강의', 본문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파고드는 '본문강해',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는 '요해'와 기독론적·구속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영해'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해석된 메시지를 현대 신앙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교훈'과 실제 설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교예제'로 마무리된다. 이 7단계는 그의 저서 제목인 '대강해'(大講解)가 시사하듯, '주석'과 '강론', 그리고 '해석'과 '적용'의 단계가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그의 주석은 단순한 해설이나 이론적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본문-신학-삶의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전적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김응조의 해석 방식은 미드라쉬의 전통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그는 엄밀한 본문 분석(할라카), 풍부한 상징과 비유(학가다), 그리고 설교적 적용(강론 미드라쉬)이라는 세 가지 전통을 창조적으로 통합한다. 특히 김응조의 '요해'와 '영해' 단계는 미드라쉬 학가다의 상징적·비유적 해석(소드, 레메즈)과 깊이 맞닿아 있다. 그는 본문에 숨겨진 심층적 의미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고, 신앙의 내면적 성찰과 실천적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의 해석은 언제나 교훈적 전환, 즉 신앙인의 구체적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메시지로 귀결된다('교훈'과 '설교예제').

결국 김응조의 주석 방법론은 유대 미드라쉬 전통의 깊이 있는 통찰을 현대적 설교 언어로 재해석한 실천적 신학 체계라 할 수 있다. 그의 해석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도 본문에 대한 철저한 경청, 심오한 신학적 통찰, 그리고 실천 가능한 설교로의 능동적 전환이라는 해석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초기 성결교회의 '영해'는 단순한 알레고리나 추상적 비유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청중의 삶을 지향하는 창조적 미드라쉬 전통과 가깝다. 동시에 이 영해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구조 안에서 모형론적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개신교적 정통성과 구속사 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복음주의적 해석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수련회 찬조

회장

이혜경 권사
참빛누리교회

| 감사의 글 |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의 비전'(예레미야 29:11)이라는 주제로 제69회 예성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의 관심과 회원님들의 참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배와 사랑의 교제로 영과 육이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는 감동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전국 교회와 여전도회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성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 년 6월 17일

예성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혜경 권사 외 임원 일동 올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기관 찬조	남부교회 박요섭 목사	김은희 집사(거룩한씨성동교회)
예성총회본부	세계로교회 백운필 목사	**차량 찬조**
총회장 홍사진 목사	운화교회 이세명 목사	신수동교회(2대)
부총회장 이종만 목사	시티미션교회 이규 목사	생명출교회
성결대학교 정희석 총장	반산교회 이희욱 목사	창신교회
여전도회부장 이상화 목사	익산반석 윤호웅 목사	꿈을이루는교회
고천교회 김만수 목사	남전도회전국연합회	남부교회
복된교회 류우열 목사	장로회전국연합회	신림제일교회
창신교회 이종복 목사	여목회자회 전병숙 목사	광은교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	기성여전도회	거룩한씨성동교회
참빛누리교회 김진도 목사	부천지련회	답십리교회
주님앞에제일교회 노윤식 목사	서울동지련회	강서교회(2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서울서지련회	등촌제일교회
신월동교회 고신원 목사	서울남지련회	독일교회
신수동교회 임시영 목사	서울중부지련회	운양교회
등촌제일교회 이병현 목사	서울지련회	주님앞에제일교회
지흥중앙교회 김성은 목사	충남지련회	고천교회
문래동교회 양준기 목사	안양지련회	주찬양교회(2대)
금마중앙교회 김명수 목사	경기지련회	참빛누리교회
구로중앙교회 윤형석 목사	창신협의회(총여전도회)	복된교회
개동교회 윤성철 목사	**개인 찬조**	
거룩한씨성동교회 최윤영 목사	한현숙 목사(주님앞에제일교회)	
독일교회 송민우 목사	류우열 목사(복된교회)	
신림제일교회 김지헌 목사	서인선 목사(참빛누리교회)	
참좋은교회 박용철 목사	윤명애 권사(서울중부지련회장)	
늘사랑교회 강명국 목사	김경숙 장로(서울남지련회장)	
꿈을이루는교회 이흥배 목사	이순애 권사(서울지련회장)	
생명출교회 김윤환 목사	차영희 권사(창신교회)	
강서교회 손항모 목사	증경 및 임원 일동	